

# 1960년대 개신교 지식인의 ‘세속화’ 수용과 교회의 사회화 문제\*

고 지 수\*\*

- I. 문제제기
- II. 개신교 지식사회와 ‘세속화’의 수용 및 확산
- III. 개신교 지식인의 ‘세속’ 이해와 교회의 사회화 문제
- IV. 맺음말

## • 국문초록

이 연구는 1960년대 한국교회 안에 수용된 서구의 ‘세속화 신학’이 개신교 지식인들에게 미친 영향을 교회의 사회화 관계에서 살펴 본 것이다. 1960년대 중반은 한국개신교가 신학적 지향에서 소수의 진보그룹과 다수 보수주의 진영으로 분화되는 시기이다. 이 현상에는 다양한 신학이론적 배경이 원인이 되었으나 본 연구는 서구 세속화 신학이 말하는 근대 이후 종교의 세속화가 교회의 사회의식에 미친 영향을 변화요인으로 접근했다. ‘세속화(secularization)’는 근대 이후 종교의 합리화 과정으로 이해되면서 서구의 사회변동에 따른 종교관계를 설명해온 고전 이론으로 폭넓게 연구되어 왔다. 종교 세속화론에 의하면 산업화·도시화가 진행될수록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7064644).

\*\*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초빙교수

인간 의식의 합리화 경향에 따라 전통적인 종교의 영향력은 쇠퇴하고 종교인구 또한 감소한다. 그러나 1960년대 근대화·산업화가 전개되면서 한국개신교 상황은 종교 세속화의 일반 논리와 다른 양상을 띤다. 성숙 이원론의 전통적 신앙관을 유지한 교단들은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성장위주의 선교전략을 제시하여 교세 확장으로 이어졌다. 반면에 소수의 개신교 지식인 집단과 진보교단은 성숙 이원론적·내세지향적 보수성에서 탈피하여 도시화·산업화된 현대사회에 기독교적 ‘세속’의미를 재해석함으로써 인간 삶의 전 영역을 일치·통합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변화를 보인다. 이는 ‘거룩’과 ‘세속’의 분리가 일치됨을 의미하며 그 결과 ‘세속(사회)’은 적극적인 선교의 대상으로 통합된다. 현실적으로는 교회의 사회의식,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1960년대 후반 이후 개신교 에큐메니컬 사회참여운동으로 구체화된다.

### • 주제어

개신교 지식인, 세속화, 세속화신학, 근대화, 기독교교수, 에큐메니컬, 교회의 사회화

## I. 문제제기

이 연구는 1960년대 한국교회 안에 수용된 서구의 세속화 신학이 개신교 지식인들에게 미친 영향을 교회의 사회화 관계에서 검토한 것이다. 19세기 미국 근본주의 보수신학을 바탕으로 전통신앙을 유지해 온 한국개신교는 1960년대 한국사회 근대화 이행에 적극 조용하면서 종교 근대화를 모색했다. 이 과정에서 1960년대 중반 이후 한국개신교는 신학적·정치적 지향에서 소수의 진보그룹과 다수의 보수주의 진영으로 분화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 현상에는 다양한 신학 배경이 원인이 되었으나 본 연구는 서구 세속화 신학의 수용과정에서 ‘세속(사회)’의 재해석을 통한 교회의 사회의식 형성이 개신교 진보성 획득에 중요 요인이 된 것으로 접근하였다. 종교사회학의 고전 이론에 의하면 근대화가 진행될수록 인간 의식의 과학화·합리화 경향이 확대되면서 전통 종교의 영향력은 쇠퇴하고 종교 인구는 감소하며 교회 중심의 신앙은 더욱 사사화·개인화된다.<sup>1)</sup> 그러나 1960년대 근대화 전개 이후 한국개신교 상황은 이와 다르게 전개된다. 특히 본격적인 산업화로 접어든 1970년대 이후 전통적인 보수교단들은 전통교리 기반의 보수적 신앙관·사회관에 의해 ‘종교 세속화’에 저항하면서 성장 위주의 선교전략을 제시하여 교세확장과 대형화라는 개신교 세속화를 초래한다. 반면에 서구의 ‘세속화 신학’을 수용한 소수의 개신교 지식인 집단과 진보교단의 경우 도시화로 특징되는 현대사회에 대한 기독교적 ‘세속’의 의미를 새롭게 부여함으로써 성숙이원론적·내세중심적 보수성을 극복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여기서 출발한다. 즉 종교 근대화를 세속화로 이해할 경우 ‘세속화 신학’을 수용한 소수의

1) 본 연구에서는 종교사회학에서 한 세기 이상 연구가 축적된 ‘종교세속화론’은 직접 다루지 않았다. 종교 세속화론에서 종교 쇠퇴 현상 등은 유럽 종교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미국개신교와 한국, 필리핀, 남미 등 그 외 지역에서는 1980년대 이후 오히려 꾸준한 교세 증가와 종교 영향력의 강화가 ‘탈세속화론’의 근거로 설명되기도 한다.

지식인 진영은 사회참여(사회선교) 형태로 교회의 사회화로 나아갔다면, 종교 세속화에 비판적인 전통교단의 경우 신앙의 개인화·교회중심의 전통성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산업화·도시화에 적합한 교회성장 전략의 선교논리로 사실상 교회 세속화로 귀결되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1960년대 중반 한국개신교가 수용한 세속화 신학 중 ‘복음의 사회성’을 적극 해석함으로써 교회의 사회의식 형성에 단초가 된 원인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1950년대 형성된 에큐메니컬 신학 지향이 1970년대 정치적 지향과 일치되는 과정에서 개신교의 진보/보수 진영 분화가 나타나는 이론 배경을 검토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한국현대사에서 1960년대 소수의 개신교 지식인들은 신학적·정치적 지향에서 진보성을 획득해 가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1970년대 유신체제 아래에서는 개신교 민주화·인권운동에 직접 참여한 지식인들로 매우 중요한 연구대상임에도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검토되지 못했었다.<sup>2)</sup> 본 연구는 1960년대 중반 한국개신교 지식사회 안에 서구의 ‘세속화 신학’을 수용·확산시킨 지식인들을 특징적으로 기술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세속’ 이해의 변화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초교파 연합기관인 대한기독교서회와 1966년 정식 발족한 한국기독교교수협회의 지식생활동이 개신교 지식인들의 세속 이해에 미친 영향을 교회의 사회의식 형성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1960년대 서구 ‘세속화 신학’이 한국사회에 유입·확산되는 과정을 구

- 2) 해방 이후 개신교 지식인 연구는 이영숙이 1950~1980년대 개신교 지식인을 ‘진보적 사회변동’의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한 연구(이영숙, 「진보적 개신교 지도자들의 사회변동 방안 연구」, 『현대 한국의 종교와 사회』, 문학과지성사, 1992), 1970년대 저항적 재야세력 연구에서 개신교 지식인 일부를 다룬 박명림의 연구(박명림, 「박정희 시대의 민중운동과 민주주의: 재야의 기원, 제도관계, 이념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24권 2호, 2008), 1960년대 근대화과 지식인문제를 다룬 임대식, 이상록의 연구가 있으나(임대식, 「1960년대 초반 지식인들의 현실인식」, 『역사비평』 no. 65, 역사비평사, 2003; 이상록, 「1960~70년대 비판적 지식인들의 근대화 인식」, 『역사문제연구』 18호, 2007.), 개신교 지식인 연구는 아직까지 진행되지 못했다.

체적으로 검토했거나, 이것이 개신교 분화 및 교회의 사회화 관계에서 검토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었다. 종교사회학에서 유사한 문제의식의 선행연구로 노치준, 정재영의 연구가 있다. 노치준은 해방 후 한국장로교회 분열현상을 세속화 신학의 수용·저항 매카니즘으로 접근하여 진보/보수교단의 분열과정을 분석하였다.<sup>3)</sup> 그는 세속화에 대한 교단들의 상반된 태도가 일차적으로는 교회 분열로, 이후 교회의 사회관계를 규정한 중요한 원인으로 접근하였는데, 본 연구도 이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바 크다. 그는 “종교 세속화” 의미를 전통 교리, 권위에 대한 무조건 충성의 거부, 인간 이성 작용 범위의 증대 경향, 사회적 행동(태도)에 있어서 현실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규정했다. 반면에 세속화에 대한 저항이 강한 보수교단일수록 전통 교리에의 충성과 타계적 성격, 현실 무관심 등의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보았다. 장로교 안에 일어난 세 차례 분열(1951년 고신 측의 분열, 1953년 기독교장로회의 출현, 1959년 WCC를 둘러싼 예장의 분열 등)에서 이러한 특징을 분석했다.<sup>4)</sup> 정재영은 1960년대 이후 근대화·산업화 관계에서 한국개신교의 성장을 분석하였다.<sup>5)</sup> 특히 그는 개신교의 양적 성장이 보수교단 교회들에서 나타난 현상을 ‘한계 분화’이론으로 설명하였다.<sup>6)</sup> 이 경우 종교의 세속화 이론을 거부한 보수교단들은 종교의 순수성, 보수성 등 전통 교리를 강조함으로써 행위 자체로는 다른 경쟁적 교회(단체)들과 차별성을 높임으로써 오히려 세속화 영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여 매우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sup>7)</sup> 역사학에서는 1960~1970년대 한국 개신교 지식인의 사회참여를 연구한 고지수의 선행

3) 노치준, 「해방 후 한국 장로교회 분열의 사회사적 연구-世俗化와의 관련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vol. 5, 1986.

4) 앞의 논문, 30~32쪽 참조.

5) 정재영, 「근대화와 한국 개신교」, 『동양사회사상』 17, 2008 참조.

6) 한계분화란 피터 버거의 개념으로 자기 교파의 제품을 경쟁하고 있는 다른 종교 집단과 구분할 필요성에서 각 종교 집단은 자신의 진앙 교백적 유산을 강조한다는 뜻이다. 앞의 논문, 43쪽 각주 33) 참조.

7) 앞의 논문, 43쪽.

연구가 있다. 고지수는 1960년대 중반 개신교 지식사회에 유입된 세속화 신학을 ‘성속이원론’의 일원화 과정으로 설명하고 이것이 1970년대 개신교 사회참여운동에 중요한 이론적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하였으나 지식인 그룹의 구체성, 그들의 ‘세속’ 이해를 거칠게 다룬 한계가 있었다.<sup>8)</sup>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관련해서 일찍이 박봉량 교수는 본회퍼의 ‘종교의 비종교화’ 연구를 남겨 매우 유의미한 선행연구가 되었다.<sup>9)</sup>

이상의 문제의식과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는 첫째, 1960년대 서구 ‘세속화 신학’이 개신교 지식사회에 수용되는 과정을 검토하고, 둘째, 개신교신학 잡지 『基督教思想』에 발표된 ‘세속화’ 관련 글들을 토대로 개신교 지식인들의 ‘세속화’ 이해 수준을 검토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보수교단 신학자들의 세속화 신학 이해를 일부 인용하여 세속 이해의 온도차를 비교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개신교 진보그룹의 세속이해가 1960년대 후반 이후 한국교회 사회의식, 사회화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인 현실참여 내용에서 조명하고자 한다.<sup>10)</sup>

## II. 개신교 지식사회와 ‘세속화’의 수용 및 확산

### 1. 1960년대 한국 개신교의 분화와 ‘세속화’ 수용 배경

1960년 4·19혁명기 한국교회는 이승만 정부와의 밀도 높은 정교유착으로 사회로부터 ‘푸주간에 끌리어가는 송아지 모양으로 民衆의 심판을

8) 고지수, 『김재준과 개신교 민주화운동의 기원』, 선인, 2016; 고지수, 「1960년대 한국기독교수협회의의 조직과 활동」, 『史林』, vol. 63, 2018 참조.

9) 박봉량, 『基督教의 非宗敎化-본회퍼 研究-』, 법문사, 1976.

10) 본 연구는 1960년대 한국개신교 지식인들의 사회의식 변화를 역사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신학 일반에서 논의하는 세속화 관련 다양한 주제들, 또는 종교사회학적 분석들은 논외로 하였음을 밝힌다.

기다리는 반혁명 세력’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sup>11)</sup> 그 결과 4·19 이후 교회의 과거청산과 사회적 책임 등을 내용으로 한 교회개혁을 요구하는 소수의 혁신그룹이 태동하였다.<sup>12)</sup> 이들은 주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세계교회 예큐메니컬 선교신학을 수용한 초교파 개신교 신학자, 목사, 지식인들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4·19시기 한국개신교의 혁신성은 기독교적 인간갱신, 종교적 도의운동, 사회 정화운동 등 비정치적·종교적 차원의 사회운동에 머무른 한계가 있었다. 1961년 5·16 쿠데타 직후 군인세력이 주도한 국민재건운동에 김재준, 함석헌, 장준하, 조향록 등 개신교 혁신파 지식인들이 참여한 이유도 이러한 제한된 종교적 현실 인식에 기초했다. 이후 한국 개신교는 1965년 한일협정비준문제에서 범교회적으로 비준반대운동을 전개하여 해방 후 현실 정치문제에 직접 참여하는 최초의 사건을 기록한다.<sup>13)</sup> 그러나 개신교의 ‘한일협정 비준반대 운동’은 민족감정 우위의 참여라는 제한성이 컸다. 결과적으로 이 참여를 계기로 개신교 내에는 현실 정치문제에 종교의 직접개입 여부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불거졌으며 이후 소수의 사회참여 그룹과 다수의 비정치적 복음주의 진영으로 분화되는 특징이 있다.<sup>14)</sup>

1960년대 세계교회 수준에서 ‘세속화 신학’의 출현 배경을 살펴보자. 1·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교회 선교신학이 인류의 위기와 실존 문제에 집중했다면 1960년대 이후로는 근대화·산업화가 파생한 인간문제, 사회모순들에 집중된 신학 논리들을 개발하여 현대사회에 조응해갔다. 1961년

11) 고지수, 「4·19 이후 한국교회 갱신문제와 ‘참여’ 이해-장공 김재준의 정교분리 이해를 중심으로-」, 『史林』 vol. 57, 295쪽.

12) 앞의 논문, 301~304쪽 참조.

13) 1965년 한일협정비준반대운동에서 범개신교 진영에서 발표한 「한일협정비준반대 성명서」는 개신교 혁신그룹의 김재준, 박형규, 홍동근, 지명관 등 소장파 목사들의 주도로 작성되었다.

14) 강인철, 「해방이후 4·19까지의 한국교회와 과거청산문제-의제 설정을 위한 시론」, 『한국기독교와 역사』 24,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6; 고지수, 『김재준과 개신교 민주화운동의 기원』 4장 2절 참조.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3차 WCC총회가 제기한 ‘급속하게 전개된 기술·사회적 혁명과 기독교의 책임’ 개념,<sup>15)</sup> 1966년 7월 제네바에서 열린 WCC의 ‘교회와 사회’ 대회, 1968년 7월 스웨덴 옅살라에서 개최된 WCC 제4차 총회의 ‘혁명적 인식의 전환’ 등 1960년대 전반에 걸쳐 WCC 계열의 선교신학은 개인 구원과 사회변혁이 분리되지 않으며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과 참여를 강조하는 신학적 사고를 확산시켰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신학, ‘신의 죽음(사신)신학’, 토착화, 상황윤리, 세속화 신학, 정치신학, 혁명의 신학 등이 1960년대 이후 세계교회 에큐메니컬 선교신학의 흐름을 형성했다.<sup>16)</sup> 한국 개신교는 1950년대 후반 이후 에큐메니컬 학생기독교운동계열, 소수의 초교파 지식인 그룹들에 의해 에큐메니컬 세계 신학사조들이 수용되기 시작했으며, 이 가운데 세속화 신학, 토착화 신학 등은 1960년대 개신교 지식인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반면에 2차 대전 이후 세계교회 차원에서 전개된 에큐메니컬 선교신학을 ‘자유주의 신학’, 신신학 등으로 경계해 온 한국 보수교단은 한국전쟁기 에큐메니컬 신학을 수용한 기독교장로회의 출현 이후 1950년대 후반 세계교회협의회 가입을 둘러싼 예상 내 분열(통합/합동)을 경험하면서 ‘WCC=용공, 자유주의’ 프레임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1960년대에 들어 보수교단들은 변화하는 세계정세-제3세계성, 아시아 근대화 문제 등-와 신학적 세속화의 흐름을 위기로 인식했다. 보수 진영의 위기의식은 에큐메니컬 신학적 다양화를 ‘자유주의 신학의 득세’로, 특히 1960년대 두드러진 제3세계 교회들의 토착화 경향을 반서방주의 또는 선교사 배척 현상으로 인식하고 이를 복음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경계했다.<sup>17)</sup> 이 배경에는

15) (내용생략) 세계기독교연합회 편, 강문규

역, 『基督者의 社會參與-社會的 急變地域에 對한 基督教對策』, 대한YMCA연맹 출판부, 1960, 1~9쪽 참조.

16) 강인철, 「종교계의 민주화운동」, 『한국민주화운동사』 2, 돌베개, 2009, 402쪽.

17) 조중남, 『세계 복음화를 위한 로잔운동의 역사와 신학』, 선교햇불, 2013, 21쪽.

세계 선교기구의 변화가 중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1910년 영국 에든버러에서 출발한 국제선교협의회(IMC, 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가 1961년 세계교회협의회(WCC)로 흡수되어 ‘세계선교와전도위원회(CWME)’로 통합되면서 이후 세계교회 에큐메니컬 선교운동의 진폭을 넓히는데 기여했다.<sup>18)</sup> 반면에 CWME 통합에 합류하지 않은 국제선교협의회(IMC) 회원들을 중심으로 국제 복음주의 연합운동들이 조직되었는데, 1966년 4월 미국 휘튼대학에서 개최된 세계선교대회(일명 휘튼대회)와<sup>19)</sup> 같은 해 베를린에서 세계복음전도대회(일명 베를린대회)가 대표적이다.<sup>20)</sup> 1960년대 중반 복음주의 진영의 국제대회 흐름은 같은 시기 한국개신교 민족복음화 운동에 직접적인 계기와 영향을 주었음은 물론이다. 즉 1960년대 중반 세계교회 차원의 선교 분화 현상은 같은 시기 한국개신교 분화에도 직접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 이 배경에는 현대 산업사회에 조용한 선교신학의 적용이 변수로 작용했다.

- 
- 18) 통합 후 1963년 멕시코시티에서 처음 열린 CWME 국제대회는 선교의 실천과 제로 1) 타종교인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증거 2) 세속적인 세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증거, 3) 그들의 이웃에 있는 신앙공동체의 증거, 4) 민족적이고 신앙 고백적 한계를 넘어선 교회의 증거 등이 채택(김은수, 『현대 선교의 흐름과 주제』, 대한기독교서회, 2001, 191~193쪽)되어 현대 에큐메니컬 선교운동의 다양한 주제들을 포괄했다.
- 19) 이 대회의 목적은 IMC와 WCC의 통합된 에큐메니컬 선교에 대해 복음주의 진영의 세계선교 전략과 실천을 밝히고 친교를 위해 개최되었다. 김은수, 앞의 책, 202쪽.
- 20) 베를린 세계전도대회는 미국의 빌리 그래함 전도협회(The Billy Graham Evangelistic Association)와 『Christianity Today』의 칼 헨리 박사(Carl Henry)가 주도하여 개최된 것이다. 이 대회에는 한국에서도 한경직, 김활란, 조종남 등 7명이 참석하였으며 세계 100여 개 나라에서 약 1,200명의 복음주의자들이 모여 “변화하는 세계 가운데 불변의 복음이 아직도 있는가?” 등 다양한 논의를 전개했다. 이 대회 이후 아시아(1968년의 싱가포르대회), 남아메리카(1969년, 보고타대회), 유럽(1970년, 프랑크푸르트 대회), 오스트레일리아(1971), 미국(1973년, 시카고 대회) 등 각 지역 후속 전도대회가 개최되었으며 1974년의 로잔대회로 이어진다. 조종남, 『세계 복음화를 위한 로잔운동의 역사와 신학』 22, 24쪽.

## 2. 1960년대 서구 ‘세속화 신학’의 국내 유통과정

1960년대 서구 세속화 신학의 한국교회 수용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첫째, 1960년대 초 세계학생기독교운동과 연계된 국내 에큐메니컬 학생기독교운동(KSCM)을 통한 수용, 둘째, 1960년대 중반 개신교 지식인들에 의한 서구 세속화신학 관련 지식생산 활동 및 지상논쟁, 셋째, 개신교 지식인 그룹-대표적으로는 ‘한국기독교교수협의회’-의 적극적인 학술활동을 통한 ‘세속화’ 이해의 확산이다. 첫째, 1960년대 초 에큐메니컬 학생기독교운동(KSCM)을 통한 수용은 세계기독교학생총연맹(WSCF)의 ‘LMC(The Life and Mission of the Church; 교회의 생명과 사명) 사업’ 중 전개된 세속화 논쟁의 목격과 증언을 통해 이루어졌다.<sup>21)</sup> 특히 1960년 7월 16일~31일까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개최된 WSCF세계대회는 세속화 논쟁이 여과 없이 드러난 대회이다. 대회에서 주로 유럽·영미권 강연자들이 논쟁을 벌였는데, ‘기독교의 현존(Christian Presence)’, ‘기독교의 비종교화’, ‘세속화 운동(Secular Movement)’ 등으로 표출되었다.<sup>22)</sup> 아시아 담당 간사로 대회에 참가했던 강문규의 증언에 의하면 논쟁에서 강조된 ‘종교의 비종교화’, 선교의 신축성 등은 기독교 쇠퇴 현상에 직면한 유럽 사회에 적용 가능한 선교 이슈로 복음 자체의 변형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선교의 유연성, 현장성을 강조하는 세속화 운동 논의는 이후 후속 모임들을 통해 전파되었고 에큐메니컬 학생기독교운동(SCM)을 중심으로 한국 개신교에도 영향을 미쳤다.<sup>23)</sup>

21) WSCF의 LMC(교회의 생명과 사명)사업은 ‘선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목적으로 1956년~1964년까지 세계 학생기독교운동가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일종의 ‘티칭 프로그램’이다. 1960년 이후 아시아성, 남미의 혁명성 등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이념들(민족주의, 공산주의, 세속주의 등), 다 종교상황에 대한 기독교의 이해를 넓히는데 주력했다. 강문규, 『나의 에큐메니컬 운동 반세기 그 미완의 여정』, 대한기독교서회, 2010, 132~135쪽.

22) 앞의 책, 142쪽. 대회에는 강문규 외에도 한국대표로 김달중, 옥혜선, 김형태, 동원모 등이 참가했다.

다음으로 서구 세속화 신학에 대한 본격적인 수용은 1960년대 중반 개신교 지식인들의 지식생산 활동을 통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는 서구 세속화신학 저서들을 국내 번역·소개하는 작업과 거의 동시에 『基督教思想』을 통한 ‘세속화’ 관련 지상논쟁을 들 수 있다. 먼저 번역 작업은 대한기독교서회 주도로 「현대총서」(1961년~), 「현대신서」(1968~) 등 기획 시리즈를 통해 집중적으로 소개되었다.<sup>24)</sup> 서구 신학계에서 ‘세속화 신학’의 기원으로 평가되는 독일의 참여 신학자 디트리히 본회퍼(D. Bonhoeffer, 1906.2~1945.4)의 주요 저서들이 국내에 최초 번역 소개된 것도 「현대총서」 시리즈를 통해서이다. 본회퍼의 『나를 따르라』가 1965년 9월(허혁 역, 현대총서 12)에 출간되었으며, 1967년 4월에는 『獄中書簡-반향과 복종-』(고범서 역, 현대총서 21)이 출간되었다.<sup>25)</sup> 기독교의 ‘비종교화’에 대한 본회퍼의 영향은 영국 올리취 교구 감독인 존 로빈슨(John A. T. Robinson)의 『神에게 率直이(Honest to God)』(1963)와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대표적인 세속화론자 하비 콕스(H. Cox)의 『세속도시(The Secular City)』(1965)가 출간되면서 확산되었다. 한국에서는 1967년 1월에 하비 콕스의 『세속도시-현대 문명과 세속화에 대한 신학적 전망』(현대총서 15)이 출간되었으며, 손명걸, 구덕관, 박형규, 김관석, 민경배, 신인현 등이 공동번역에 참여했다.<sup>26)</sup> 하비 콕스의 『세속도시』는 1965년 미국의 학생기독교자연맹(National Student Christian Federation) 대회 연구 자료로 작성된 것으로<sup>27)</sup> 미국에서 출간 직후 국내에 소개·유통되어 개신교 지식사회 안

23) 앞의 책, 145쪽.

24) 「현대총서」가 1961년~1975년까지 세속화신학 관련 서구의 기초 중요 24권을 다루었다면 1968~1990년까지 총 150권의 시리즈로 종결된 「현대신서」는 현대 서구 신학·지성계와 국내 개신교 지식인들의 폭넓은 신학 비평, 논저들을 장기간에 걸쳐 발표해 왔다.

25) 디트리히 본회퍼 저, 허혁 역, 『나를 따르라』, 대한기독교서회, 1965; 디트리히 본회퍼 저, 고범서 역, 『獄中書簡』, 대한기독교서회, 1967.

26) 하비 콕스 저, 구덕관 외 역, 『세속도시』, 대한기독교서회, 1967, 3쪽.

27) 박형규, 「‘世俗都市’논쟁의 전망」, 『基督教思想』 11, 1967, 32쪽.

에 신선한 파장을 일으켰다. 공동번역을 대표한 구덕관은 1960년대 초 미국 오하이오 주 감리교신학대학에서 유학한 신학자이다. 영국에서 출간된 존 로빈슨의 『神에게 率直이(Honest to God)』는 미국 유니온 신학교 유학 출신의 현영학에 의해 1968년 1월에 국내에 번역 출간되어 『세속도시』 못지않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현대총서 12).<sup>28)</sup> 세속화신학 외에도 「현대총서」는 실존주의 신학, 평신도신학 등 현대 개신교 참여 신학의 중요 저서들을 번역 소개하여 에큐메니컬 신학운동에 이론적 기반을 넓히는데 기여했다.

1968년 감신대학장 홍현설 박사의 『世俗 속의 크리스천』으로 시작된 대한기독교서회의 또 다른 기획물 「현대신서」 시리즈는 원자력·우주시대, 인간 자유의지 시대 등 현대의 과학기술문명을 강조하고, 전통적 가치관, 종교적 영원성이 소멸한 세속화 시대에 기독교적 지식인 운동의 전파를 기획 의도했다.<sup>29)</sup> 번역작업에는 전경연(보스톤 대, 한신대 교수), 이계준(감신대·미 보스톤대학원, 연세대 교수), 박형규(도쿄신학대·미 유니온신학교), 문익환(도쿄신학대·프린스턴신학교), 서남동(도시샤대·캐나다토론토임마누엘신학교, 연세대 신과교수), 현영학(유니온신학교, 이화여대 교수), 지명관(서울대 종교학과), 손명걸, 정하은, 강원용(유니온신학교), 고범서(서울사대, 숭실대 교수), 유동식, 허혁(감신대·독일윈스터 대, 이화여대 교수), 이장식(한신대·캐나다퀸즈대 신학대학·미 유니온신학교 등, 한신대 교수), 주재용, 박종화 외에 다수 개신교 지식인들이 참여했다.<sup>30)</sup> 주로 1950년대~1960년대 초까지 일본, 미국, 독일, 캐나다 등에서 유학했던 신학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진보색채가 두드러진

28) J. A. T. 로빈슨 저, 현영학 역, 『神에게 率直이』, 대한기독교서회, 1968. 미국 유니온신학교 출신의 현영학은 이외에도 폴 킬리히, 본회퍼 등의 저서를 국내 번역 소개하여 한국교회 현대 신학의 지평을 넓히는 역할을 담당했다.

29) 홍현설, 『世俗 속의 크리스천』, 대한기독교서회, 1968, 140쪽. 홍현설 박사는 1930년대 일본 간사이(關西)학원, 도시샤(同志社)대 신학부를 거쳐 1950년대 미 유니온 신학교대학원을 졸업했다.

30) 이름 옆 괄호에는 출신 학교(유학), 번역 당시 소속기관명을 병기했다.

유니온 신학교 출신자들이 눈에 띈다. 귀국 후에는 한국신학대학, 연세대, 이화여대, 감신대 등 에큐메니컬 계통의 기독교 대학들에 포진되어 있었다. 이외에도 시리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1969년 11월 '서회'에서 출간된 존 머쿼리의 『神과 世俗』(장병일 역)도 동일한 범주이다. 아래는 「현대총서」·「현대신서」 시리즈 중 '세속화' 논의 관련 저·번역서를 정리한 것이다(출간 순).

D. 본회퍼 저, 허혁 역, 『나를 따르라』, 대한기독교서회, 1965.  
 H. 쿡스 저, 손명길 역, 『世俗都市:現代 文明과 世俗化에 대한 神學的 觀望』, 大韓基督教書會, 1967.  
 D. 본회퍼 저, 고범서 역, 『獄中書簡』, 대한기독교서회, 1967.  
 폴 아브페르트 저, 정하은 역, 『教會와 急變하는 社會』, 대한기독교서회, 1967.  
 신인현, 『빈곤에 도전하는 基督教』, 대한기독교서회, 1968.  
 장병일, 『技術文明과 宗教』, 대한기독교서회, 1968.  
 정하은, 『韓國 近代化와 倫理的 決斷』, 대한기독교서회, 1968.  
 홍현실, 『世俗 속의 크리스천』, 대한기독교서회, 1968.  
 루돌프 볼트만 저, 서남동 역, 『歷史와 終末論』, 대한기독교서회, 1968.  
 J. A. T. 로빈슨 저, 현영학 역, 『神에게 率直이』, 대한기독교서회, 1968.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 저, 이병섭 역, 『신학과 하나님의 나라』, 대한기독교서회, 연도.  
 D. M. 브라운 저, 이계준 역, 『폴 탈리히 궁극적 관심』, 대한기독교서회, 연도.  
 김관석,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대한기독교서회, 1969.  
 J. 플레밍·켄 라이트 저, 김정준·주재용 역, 『새로운 宣敎와 社會構造』, 대한기독교서회, 1969.  
 P. 탈리히 저, 김천배 역, 『흔들리는 터전』, 대한기독교서회, 1969.  
 R. 볼트만 저, 유동식 역, 『聖書의 實存論的 理解』, 대한기독교서회, 1969.  
 서광선, 『智性·世俗·信仰』, 대한기독교서회, 1971.  
 J. C. 베넷 저, 강원용 역, 『크리스천의 정치적 책임』, 대한기독교서회, 1972.  
 J. C. 호텐다이크 저, 이계준 역, 『흠여지는 教會』, 대한기독교서회, 1979.  
 P. 버거 저, 김쾌상 역, 『現代社會와 神』, 대한기독교서회, 1979.

다음으로 개신교 지식인들의 ‘세속화’ 관련 지식활동은 『基督教思想』을 통한 지상토론으로 확산된다. 『基督教思想』은 1957년 초교파 개신교 지식인들에 의해 창간된 신학 잡지로 세계교회 수준의 신학 논의들을 동시간대로 한국 지식사회에 유통·확산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 1960년대 ‘세속화’ 관련 지상논쟁은 『基督教思想』이 1965년 1월 ‘오늘의 현실’과 ‘종교 세속화’를 제기하면서 촉발된다(아래 목록 중 김용구/좌담회 등 참조). 이 글들은 현대사회의 종교적 이해와 과학적 합리성 추구 가능성을 제기함으로써 세속화 논의의 단초를 열었다. 이후 1970년대 초까지 『基督教思想』은 약 30여 편의 ‘세속화’ 관련 글들을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이 논의를 확산시켰다. 주요 필자로는 박봉량, 서남동, 서광선, 손명걸, 강원용, 오재식, 유동식, 윤성범, 박형규, 이종성, 허 혁 등으로 앞서 번역작업에 참여했던 인물들과 대부분 중복된다. 『基督教思想』을 통한 서구 ‘세속화 신학’의 논의가 확산되자 보수교단을 대표하는 박아론, 김의환, 박형룡 등이 『神學指南』을 통해 비판하는 글로 대응했다. 아래는 『基督教思想』과 『神學指南』에 발표된 ‘세속화’ 관련 개신교 지식인들의 글을 정리한 목록이다(시기 순)

- 김용구, 「變貌하는 世界와 基督教」, 『基督教思想』 no.1, 1965.  
 좌담회, 「오늘의 現實과 韓國教會」, 『基督教思想』 no.1 1965.  
 태정학, 「現代 科學과 基督教 信仰」, 『基督教思想』 no.1 1965.  
 강문규, 「世俗主義와 世俗化」, 『基督教思想』 no.2, 1965.  
 서남동, 「福音傳達과 그 世俗的 解釋」, 『基督教思想』 no.2, 1965.  
 유동식, 「韓國 教會가 지닌 非宗敎化의 課題」, 『基督教思想』 no.2, 1965.  
 최신덕, 「社會的 偏見과 傳達」, 『基督教思想』 no.2, 1965.  
 박봉량, 「틸리히의 基督教 理解」, 『基督教思想』 no.12, 1965.  
 손명걸, 「世俗化 과정에서의 새로운 기독교」, 『基督教思想』 no.12, 1965.  
 안병무, 「볼트만의 十字架 理解」, 『基督教思想』 no.12, 1965.  
 허 혁, 「복음화나 세속화나」, 『基督教思想』 no.12, 1965.  
 서남동, 「세속화의 과정과 그리스도교」, 『基督教思想』 10, 1966/2.  
 시 평, 「世俗化의 方向摸索」, 『基督教思想』 no.2, 1966.  
 이종성, 「基督教 世俗化와 福音의 主體性」, 『基督教思想』 no.3, 1966.  
 Larry Shiner, 「세속화신학의 방향」, 『基督教思想』 no.4, 1966.

- 서광선, 「새로운 세대와 세속화」, 『基督教思想』 no.5, 1966.  
 태석의선, 「세속화 시대의 그리스도교」, 『基督教思想』 no.6, 1966.  
 도양술, 「세속화론비판」, 『基督教思想』 no.10, 1966.  
 오재식, 「세속도시」, 『基督教思想』 no.3, 1967.  
 박봉량, 「神의 죽음 神學 : 最近 特히 歐美에서 論議되고 있는 기독교 사상의 새로운 움직임」, 『學術誌』vol. 8, 1967.  
 박봉량, 「현대 기술문명과 신 이해 - 바르트와 본회퍼를 중심으로」, 『基督教思想』 no.10, 1967.  
 박형규, 「‘世俗都市’ 논쟁의 전망」, 『基督教思想』 no.12, 1967.  
 김의환, 「세속화는 기독교를 교회에서 세상으로 옮기는 것인가」, 『基督教思想』 no.12, 1967.  
 윤성범, 「1967년 신앙고백 연구에 대한 반론-복음의 세속화의 타당성」, 『基督教思想』 no.12, 1967.  
 최우길, 「복음의 세속화와 특수전도」, 『基督教思想』 no.12, 1967.  
 윤성범, 「말씀의 신학과 세속화론」, 『基督教思想』 no.2, 1968.  
 이규호, 「종교의 세속화와 자율성」, 『基督教思想』 no.12, 1968.  
 P. G. Schrotenboe 저, 서철원 역, 「에큐메니즘과 세속주의」, 『神學指南』 vol. 36, 1969/3.  
 박이론, 「세속화신학 비판」, 『神學指南』 no.9, 1968.  
 박형룡, 「과학의 세속화」, 『神學指南』 no.9, 1969.  
 C. A. 반퍼센, 「세속적 인간」, 『基督教思想』 no.5, 1975.  
 박봉량, 「세속화 이후의 그리스도論」, 『神學思想』 vol. 18, 1977.

‘세속화’의 세 번째 유통경로는 개신교 지식인들에 의한 집단 학술 활동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기독교교수협의회(이하 ‘기독교교수협의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기독교교수협의회는 1957년 11월 대학세계 학생기독교운동 그룹인 YMCA, YWCA, KSCC 등을 지도하는 크리스천 교수(전임·비전임 교원 및 교직자)들의 친교모임으로 출발한 뒤 1966년 정식 창립대회를 개최한 대표적인 개신교 지식인 그룹이다.<sup>31)</sup> 1960년 4·19 혁명기 교회 혁신 과제와 1961년 WCC 제3차 뉴델리 대회의 에큐메니컬 신학운동을 공유하면서 사회의식이 고양된 기독교교수협의회는 1960년대 중반 이후 경제개발과 근대화 이행 등 사회 현안에 대한 기독교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다. 1966년 1월 6~7일 온양호텔에서 총 67명의 입회원이 모여 개최된 창립대회의 주제는 ‘世俗化의 과정과 기독교’로, 전국에

31) 고지수, 「1960년대 한국기독교교수협의회 조직과 특징」, 220쪽.

서 80여명의 개신교 지식인들이 모여 ‘세속화’ 논의를 확산시켰다.<sup>32)</sup> 아래의 창립 취지문에 교수협회의 현실인식이 잘 드러나 있다.

현대사회는 전적인 自律을 지축으로 하여 기능적으로 극대화한 나머지 여기 거대한 世俗文明을 형성해 놓았다. 우리는 이 세속세계의 언저리에서가 아니라 바로 그 生 의 한 가운데서 生의 畛域에 개방되어 있다. ...이 世俗世界-종교·사회·문화와 대학세계 등에서의 크리스찬의 現存(Presence)이 무엇인가를 밝혀 보기 위해 이 모임을 갖는다.<sup>33)</sup>

위의 창립취지문에서 교수협회는 현대사회를 자율과 기술이 극대화된 세속세계·세속문명으로 규정하였다. 세속세계에서 인간 삶은 정치·종교·사회·문화 등의 전 영역이 개방됨으로써 ‘거룩’과 ‘속됨’의 분리 영역이 없이 일치로 통합된다. 대회에서 협의회 초대 회장에 선출된 서남동 교수(연세대 신과대학장)는 주제 강연을 맡아 세속화(secularization)와 세속주의(secularism)의 차이를 설명하고 세속화를 ‘종교적 지배, 보호, 형이상학적 사고 등 폐쇄된 세계관으로부터 해방을 얻은 역사과정’으로 개념화했다. 그에 의하면 세속화는 “복음이 이교문화에 접촉될 때 일어나는 정당하게 기대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해석하여 토착화 관점에서 역사적 세속화의 필연성을 강조했다.<sup>34)</sup> 이외에도 김용욱 교수(성서연구, 감신대, 신약)가 강연을 맡았으며, 분과별 발제 토의로 ① 기독교와 타학문의 공존과 대화(유동식, 감신대) ② 거룩한 세속성과 크리스찬 교수의 이미지(고범서, 숭실대, 철학) ③ 현대사회와 교회혁신(지명관, 서울대)으로 이

32) 창립총회의 강사로는 서남동(연세대, 조직신학), 유동식(감신대), 지명관(서울대), 고범서(숭실대 철학), 김용욱(감신대, 신약학), 이영현(총회신학)등 총 6명이다. 한국기독교사교수협회3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기독교사교수협회 30년 자료집』, 한국기독교사교수협회, 1998, 69쪽.

33) 앞의 책, 129쪽.

34) 앞의 책, 131쪽.

뤼졌다.<sup>35)</sup> 창립대회 이후 기독교교수협의회는 점차 입회원 자격을 기존의 기독교교수 외에 ‘각 대학 기독교학생운동 지도자, 학생기독교운동 각 단체 실무자’로 대폭 확대하고 참가 인원도 늘려 교수협의회 활동의 현상성, 사회성을 강화했다.<sup>36)</sup> 서남동(연세대 신학), 김용옥(감신대 신학), 김용준(고려대 화공학), 현영학(이화여대, 기독교교육), 신인현(KSCF 기독교윤리), 노명식(경희대 사학), 조요한(숭실대 철학) 등은 교수협의회 창립 멤버들로 지속적으로 활동했으며, 이외 현장 활동가들인 강문규, 오재식, 박형규와 안병무, 이문영, 한완상, 김찬국, 남정길, 서광선 등은 1970년대 초 임원진에 합류하여 교수협의회를 이끌었다.<sup>37)</sup>

같은 시기 개신교 지식인들의 에큐메니컬 협의회인 ‘한국기독교자도자협의회(韓國基督教指導者協議會)’도 주목된다. 한국기독교연합회(NCC)와 동남아기독교협의회(EACC) 공동 주최로 1966년 1월 17일~20일까지 개신교 지도자 46명이 참가한 가운데 “人間社會 안에 있는 基督教 共同體”(the Christian Community within the Human Community)를 주제로 다양한 토의를 진행하였다. 협의회는 교회와 사회의 관계, 기독교인의 정치참여, ‘새로운 형태의 증거와 봉사’ 등 교회가 사회와 맺는 선교방식과 내용 등에서 현장성을 강화하는 ‘세속화’의 방향을 포괄적으로 다루었다.<sup>38)</sup> 아래는 이 협의회에서 진행된 토의 및 강연의 구체적 내용이다.

35) 앞의 책, 130~143 참조.

36) 고지수, 「1960년대 한국기독교교수협의회 조직과 특징」, 232~233쪽.

37) 앞의 논문, 240쪽.

38) ‘한국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한국기독교장로회회보』, 1966/1, 8쪽; 고지수, 『김재준과 개신교 민주화운동의 기원』, 326쪽. 이 대회는 1964년 봄 방콕에서 열린 제3회 동남아기독교협의회(E.A.C.C) 결정에 의해 후속 모임으로 개최된 것으로 주제도 방콕대회에서 먼저 결정된 것이었다. 시평, 「韓國 基督教指導者 協議會」, 『基督教思想』, 1966/3, 7~8쪽.

※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1966.1.17.~20) 개최 현황<sup>39)</sup>

강연 및 토의	강연자		제목	
주제 강연	강원용		인간 사회 안에 있는 기독교 사회	
	김재준		교회와 세계	
	이종성		교회의 혁신	
패널토의	기독교와 타종교	김재준 윤성범 유동식	에큐메니컬 운동	김정준, 김동수 김주병, 박상중
		지명관	기독교인의 정치참여	
분과 토의	장홍식		기독교인과 경제 및 外援	
	박봉배		새로운 형태의 증거 새로운 형태의 봉사	
	이종성		아시아 교회의 혁신 아시아 교회의 선교정책	

주제 강연에서 강원용은 현대 서구 유럽사회의 기독교 쇠퇴 현상과 아시아 기독교 상황을 비교하고 구체적 상황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경우 근대화 도상의 아시아에서 기독교는 사회 혁신, 민족주의 특징, 다종교 사회의 전통적 반서구 정서 등과 같은 아시아적 구체성, 복음의 현장성·사회성이 강조된다. 복음의 현장성 강화를 위해 협의회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정치참여를 위한 연구기관의 필요성, 평신도의 사회의식 각성 및 교육 강조 등 현대성, 세속성의 확산 방향에서 교회와 사회의 접촉점을 확대할 것을 논의하였다. 기독교자교수협의회가 신학계에서 진행된 ‘세속화’ 이해에 집중되었다면 기독교지도자협의회는 교회의 세속(사회) 관계에 다층위적 접근 방식을 모색한 시도로 이해된다. 이와 같이 1960년대 중반 이후 개신교 지식사회 안에 ‘신학적 세속화’ 관련 지식 생산 활동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특히 1965~1966년 사이 ‘세속화론 是非’, ‘기독교와 세속화문제’, ‘기독교의 세속화론’ 등의 표현이 다양하게 등장하는 것으로 볼 때<sup>40)</sup> 이 시기를 거쳐 개신교 내에 사회의식·사회

39) 시평, 「韓國 基督教指導者 協議會」 참조.

화 문제가 구체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Ⅲ. 개신교 지식인의 ‘세속’ 이해와 교회의 사회화 문제

#### 1. 개신교 지식인의 ‘세속’, ‘세속화’ 이해

세속화 신학에서 ‘세속(Secular)’이란 라틴어 ‘Saeculum’에서 파생된 것으로 「시대」, 「세대」, 「장기간의 시간」 등 시간의 의미를 가진 개념으로 장소의 의미를 가진 라틴어 mundus(세계)와는 대조적이다.<sup>41)</sup> 그리스적 사고에서 세계는 고정된 넓이를 가진 ‘장소’를 의미했으나 히브리적 세계관에서 세계는 발전하고 흘러가는 세대, 즉 ‘세속’이고, 역사를 의미했다.<sup>42)</sup> 서구 개신교 신학에서 세속화의 사상적 기원은 독일의 참여신학자 디트리히 본회퍼에서 찾는다. 기독교의 비종교화로 정립된 본회퍼 신학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인가”를 던져 새로운 기독교의 존재성을 촉구하는 신학적 사고의 원형을 제시하여 그의 사후 현대 신학계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sup>43)</sup> 본회퍼의 대표저서 『옥중서간-저항과 복종』은

40) 문익환은 “지난 1년 남짓이 이 땅에서도 신학도들 사이에 기독교와 세속화의 문제를 싸고 진지한 대화가 전개된 것을 뒤늦게나마 미국에서 돌아와 보고 흐뭇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라 하여 세속화 논의를 긍정하였으며(문익환, 「기독교와 세속세계-한국이라는 특수 고장에서-」, 『基督教思想』 10, 1966, 68쪽), 유동식은 “우리 교계에는 수 삼 년째 世俗化라는 말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일부 신학자들이 기독교의 세속화를 소개하고 또 주장하고 있는가 하면 교계의 많은 지도자들이 이에 반기를 들고 있다”(유동식, 「福音의 世俗性」, 『基督教思想』 11, 1967, 24쪽) 라고 하여 이 당시 개신교계 세속화 수용이 논쟁적이었음이 확인된다.

41) 박아론, 「세속화 신학 비판」, 『신학지남』 35, 1968, 33쪽; 박형규, 「‘世俗都市’ 論爭의 展望」, 『基督教思想』 11, 1967, 34쪽.

42) 유동식, 앞의 글, 25쪽.

43) 앞서 『基督教思想』에 발표된 ‘세속화’ 관련 글 목록 가운데 서남동, 박형규, 서광선, 문익환, 허혁, 손명걸 등 많은 지식인들이 본회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수감생활 중 작성한 편지들을 모아 사후 편찬된 것으로 기독교의 형이상학적·초월적 종교성을 복음의 현세적·세속적 의미로 적극적으로 재해석했다.<sup>44)</sup> 본회퍼는 현대사회를 인간 자율성이 (거의) 완성에 도달한 시대, ‘신이라는 작업가설의 도움 없이도 모든 문제들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게 된 세계’로 보았고, 이를 ‘성인이 된 세계(Mündig gewordene Welt, come of age)’로 명명했다.<sup>45)</sup> 성인이 된 시대는 ‘종교의 시대’가 지나갔음을 의미했다.<sup>46)</sup> 그의 ‘비종교화’ 논리는 아래에서 확인된다.

..... 비종교적인 세계 속에서 전체로서의 교회, 개체 교회, 설교, 예배 의식, 그리스도교적 삶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는-종교 없이, 즉 형이상학, 내면성 등의 시간적으로 제약된 전제들 없이-어떻게 하나님에 관해 말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세상적으로(weltlich)” “하나님”에 관해 말할 수 있는가? ..... 어떻게 우리는 “비종교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자신을 종교적 특권자로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 전적으로 세상에 속한자로서 즉 부름 받은 자들이 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더는 종교의 대상이 아니라, 뭔가 전혀 다른 것, 즉 진정으로 세상의 주님이 되실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sup>47)</sup>

위에서 ‘세상적으로’ 또는 ‘비종교적으로’란 기존의 기독교 세계가 유지해 온 ‘종교성’에 대한 거부이자 폐기를 전제로 한다. 본회퍼에게 ‘종교

44) 본회퍼의 『옥중서간-저항과 복종』은 1967년에 대한기독교서회가 고범서 역으로 최초 번역 출간하였는데, 2010년 대한기독교서회가 독일에서 출간된 전집 16권(『디트리히 본회퍼 전집』) 중 8권을 ‘디트리히 본회퍼 선집’으로 번역하면서 완역본(손규태·정지련 역)이 재출간되었다. 본 연구에서 인용한 『옥중서간-저항과 복종』은 2010년판 완역본임을 밝혀 둔다.

45) 본회퍼, 『옥중서간-저항과 복종』, 대한기독교서회, 2010, 607쪽.

46) 박봉량은 본회퍼에게서 종교란 ‘개인주의, 형이상학적, 극부적, 문제의 해결책, 특권=타락’이며, ‘현실로부터 저쪽으로의 도피’로 설명했다. 박봉량, 『基督敎의非宗敎化-본회퍼 研究-』, 범문사, 1976, 422~424쪽.

47) 본회퍼, 『옥중서간-저항과 복종』, 519쪽.

(적)성’(다시 말해 기독교의 신)이란 한계에 직면한 인간이 불러내는 ‘기계장치 신(deus ex machina)을 의미했다.<sup>48)</sup> 그의 표현에 따라 ‘성인된 세계’, 즉 인간 자율성이 거의 완성단계에 이른 현대사회에서 ‘종교적 신’은 더 이상 불러 지지 않는다. 이와 같은 비종교화된 세계 속에서 “제의와 기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의문을 던져 현대사회 속에 새로운 존재로의 기독교에 도전했다. 그의 여러 기술들에 다음과 같은 ‘세속화’ 관련 표현들이 등장한다.

“... 교회는 인간의 능력이 실패한 곳, 한계에 있지 않고, 마음 한가운데 있지.”<sup>49)</sup>

“... 세상의 성숙성은 이제 논쟁과 변증을 위한 동기를 부여해 주지 않는다네. 그러나 세상은 자신을 복음과 그리스도로부터 이해할 때, 스스로 자신을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네 ……”<sup>50)</sup>

본회퍼의 비종교화와 종교의 세속성 이해, 새로운 기독교로의 도전은 1960년대 영미(英美)신학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진보적 개신교 지식인들에게도 예외 없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본회퍼, 폴 틸리히 등에서 영향 받은 존 로빈슨의 『신에게 솔직이』는 기독교의 초월주의, 형이상학, 초자연주의 등 ‘저 밖’의 시선을 ‘이 세계 안’으로 인식의 전환을 전환시키는데 울림을 주었다.<sup>51)</sup> 이 전환에는 물질계와 정신계 등의 이원론으로부터

48) 앞의 책, 521쪽.

49) 앞의 책, 523쪽.

50) 앞의 책, 614쪽.

51) 종교의 초월성, ‘저 밖 어딘가’에 있는 신 존재를 ‘내재성’, 또는 ‘이 세계 안’으로 시선을 옮긴 현대 신학자는 폴 틸리히(Paul Tillich)이다. 로빈슨 역시 『솔직이』에서 자신이 틸리히의 설교집 ‘흔들리는 터전(The Shaking of the Foundation)’ 중 제목 ‘실존의 깊이’에서 높이의 표현이 깊이의 표현으로 바뀔 때 생기는 변화에 자극되었으며, 신은 ‘저 밖에’ 있는 투영 또는 하늘 저쪽의 타자가 아닌 우리 존재 자체의 기반(ground)로 인식된 것으로 썼다. 틸리히 영향을 더 깊이 들어가면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에의 더 깊은 잠김’과 맞닿아 있다. J. A. T. 로빈슨, 『神에게 率直이』, 27~28, 59쪽.

벗어남, ‘밖’에 있는(out there or Beyond) 신’과의 결별이 전제가 된다.<sup>52)</sup> 경험 가능한 과학화·세속화된 현대 세계는 삼층 구조의 우주상 또는 이원론적 세계관에 쉽게 동의되지 않는다. 초월성의 벗어남은 ‘기독교적 신(하나님)’을 ‘공간적’ 차원에 귀속시키지 않는다. 초자연주의 세계관의 배제는 신 존재를 인격 ‘밖’에 설정하는 것을 배척한다는 의미이다. 오히려 우주적 존재, 모든 존재의 깊이와 기반, 무제약적, 궁극적 존재로 생에 관여하는 신으로 재해석된다. 우주 공간 밖의 ‘초월자’에서 인간 생에 직접 관여하는 신으로의 재해석은 ‘종교가 없는 곳에 예배’로, ‘삶의 중심’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회전반 구조 속’, ‘인간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실재’로서 현대인에게 수용된다.<sup>53)</sup> 로빈슨의 『신에게 솔직이』보다 2년 뒤 발표된 하비 콕스의 『세속도시』는 현대적 삶에 더 가까운 언어로 세속화를 기술했다.

“세속화는 세계에 대한 종교적 또는 유사 종교적 이해로부터 세계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며, 모든 폐쇄적 세계관과 모든 초자연적 신화와 거룩한 상징들을 깨뜨려 버림이다. 세속화는 또한 역사의 비운명화이기도 하다. … 세속화는 인간의 관심을 저 세상으로부터 지금 이 세상으로의 돌림이다.”<sup>54)</sup>

… 현 형태의 도시화는 종교적 세계관의 파멸로부터 솟아나는 과학 및 기술 발전으로 이루어졌다. 세속화 역시 도시화와 대등한 획기적인 운동으로서 인간 공동생활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변화가 있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사회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구조와 상징들은 상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세속도시들은 우리 공동생활의 형태와 세계관의 상징으로 나타난다. 그리스 사람들의 우주를 인간 도시가 무한히 확대된 것으로 이해하고, 중세 사람들이 우주는 봉건영주의 영지가

52) 손명걸, 「세속화 과정에서의 새로운 기독교」, 『基督教思想』 vol.9, 1965/12. 70쪽.

53) J. A. T. 로빈슨, 『神에게 率直이』, 112~113쪽; 손명걸, 위의 글, 70쪽.

54) 하비 콕스 저, 구덕관 외 역, 『세속도시』, 대한기독교서회, 1967, 8쪽.

무한하게 확대된 것으로 보았다면, 우리는 우주를 인간의 도시로 경험하고 있다. 세계는 인간의 도시가 되고, 인간들의 도시는 전세계를 포괄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과정을 유발한 것이 곧 세속화이다.<sup>55)</sup>

콕스의 세속화이해는 종교적 세계관의 소멸, 초자연적·타계적 세계관으로부터의 자유, 현세적 세계관의 수립이다. 콕스는 현대 과학기술문명의 총화를 ‘도시화(세속도시)’로 제시하고 이것을 세속화의 완성이자 인류 역사의 필연적 과정으로 제시하였다. 『基督教思想』를 중심으로 개신교 지식인들의 세속 이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용어상의 문제로 세속화 신학 또는 세속화론에서 ‘세속’의 부정적 뉘앙스는 당시 개신교 지식인 사이에 본능적인 반감을 일으켰다.<sup>56)</sup> 이러한 반감의 배경은 전통 기독교 세계관에서 ‘세속’ 또는 ‘세상’이 ‘거룩(聖)’과 대비된 ‘타락한 곳’, ‘적대세력’, ‘사랑치 말아야 할 곳’으로 받아들여져 왔기 때문이다.<sup>57)</sup> 그러나 성경의 또 다른 용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사실에서 세상 또는 세속은 재인식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기독교 세속화에는 ‘세속적 사건’으로서의 복음의 재인식이 필연적으로 전제된다. ‘이 세계(The world)’는 더 이상 종교적 신성과 구별하던 ‘옛 세계 세속’이 아니며, 성속(聖俗)의 구분은 무의미해진다.<sup>58)</sup> 근대 이후 과학기술문명을 이룩한 인류는 기술과학이 종교를 대체했으며 생산과정의 기계화는 비인간화를 낳아 사회와 역사는 종교 없는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sup>59)</sup> 기술문화가 발달하고 경제적 산업화에 따라 인간 삶의 조건이 합리적으로 제도화

55) 앞의 책, 7쪽. 콕스의 ‘세속도시’는 인류의 단계를 부족시대-성읍시대-도시시대로 유형화하여 각각 신화/주술 시대, 혈연관계에 의한 폐쇄된 시대, 3시대인 세속도시 시대로 분류하고, 3단계에 비로소 형이상학, 종교지배로부터 해방된 기술문명시대로 보았다.

56) 용어상의 반감으로 ‘세속화’를 ‘세상화’ 또는 ‘생활화’ 등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관석,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대한기독교서회, 1969, 85쪽.

57) 유동식, 「福音의 世俗性」, 24~25쪽.

58) 앞의 논문, 26~27쪽.

59) 서남동, 「世俗化的 科程과 그리스도教」, 『基督教思想』 10, 1966, 15쪽.

되는 과정을 근대화라 한다면, 이를 받아들이는 관점이 기독교적 세속화이다.<sup>60)</sup> 현대사회는 기독교가 타종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자체가 과학과 기술문명에 부딪치는 시대이다.<sup>61)</sup> 즉 근대화에 따른 정치·경제적, 가치관의 변동에 도전하는 것이 세속화 신학이다. 현대적 삶은 전체와 부분과의 관련체 속에 해석된다. 종교의 지배 아래 있던 중세와 달리 근대 이후 정치·경제·교육·과학·예술과 종교 등 삶의 모든 영역들은 서로 관련되어 전체를 구성한다. 역사적 흐름이라는 큰 관련체에서만 모든 영역은 제구실을 한다.<sup>62)</sup> 역사의식의 상대화이자 각각의 영역의 상대화를 의미한다. 세속화론자들의 상대화는 의식, 사상의 상대화에서도 나타난다.

“인간의 이상과 그 사상체계는 언제나 특수한 역사적인 조건과 정신사적인 상황아래서 나타난다. …… 역사적인 조건과 정신사적인 상황이 바뀌어지면 등한히 여겨진 다른 면들이 다시 주목을 끌게 되고 정당하게 고려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인간의 이상과 사상체계는 바뀌어진다.”<sup>63)</sup>

위에서 역사인식의 상대화는 물론이거니와 당대 기독교의 세속화 조차도 역사적 특수성의 한 부분으로 이해될 수 있다. 개신교 지식인들은 세속화와 세속주의를 명확히 구분하였다. 세속화는 폐쇄된 세계관으로부터 해방, 비숙명적 자유의 과정이며 필연적인 역사과정이다.<sup>64)</sup> 반면에 세속주의는 “자기 완결된 폐쇄적인 이데올로기”이다.<sup>65)</sup> 박형규도 “세속화는 사회와 문화가 종교적인 지배와 폐쇄적인 형이상학적 세계관의 구속에서

60) 김관석,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87쪽.

61) 앞의 책, 88쪽.

62) 이규호, 「종교의 세속화와 자율성」, 『基督敎思想』 12, 1968, 86쪽.

63) 앞의 논문, 86쪽.

64) 서남동, 「世俗化的 科程과 그리스도敎」, 18쪽.

65) 앞의 논문, 18쪽.

벗어나는 역사과정”으로 필연적이다. 반면에 세속주의는 공산주의, 히틀러의 민족사회주의와 같이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인간 사고와 행동을 구속하고 지배하는 “폐쇄적인 세계관”이라 하여 세속화와 구분하여 차별시켰다.<sup>66)</sup> 그렇다면 이 시기 개신교 지식인의 세속화 이해는 비판 없이 무조건적 수용이었는가.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논쟁의 중심은 하비 콕스의 『세속도시』와 그의 낙관주의이다. 서광선은 콕스의 관점을 ‘희망의 나라로’를 합창하는 미국식 낙관주의로 보고 1960년대 한국교회에 동일한 ‘낙관적 세속화’가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했다.<sup>67)</sup> 그는 서구 산업화 사회를 ‘인간과 문명을 致賀하는 단계’로, 반면에 한국사회는 ‘대통령선거를 정감록을 가지고 운운하는 정치생활’, ‘미신적 사고방식’ 상태에서 서구식 세속화의 적용에 의문을 제기했다. 문익환은 콕스의 약점으로 ‘바르트와 본회퍼에게 있는 성서의 리얼리즘을 미국의 낙관주의로 대처’한 것을 들었으며 서구 세속화를 ‘너무나 소박하게 승인함으로써 세속화의 암흑면을 보지 못한 것’으로 제한을 두어 무조건적 세속화 수용에는 부정적이었다.<sup>68)</sup> 박형규는 콕스의 ‘세속도시’가 미국 대도시의 사회학적 현상을 신학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한국사회와 단순 비교는 어려울 뿐더러 ‘세계 어떤 도시도 완성된 기술도시는 없다’고 하여 현대 인류문명에 대한 지나친 낙관주의를 경계했다.<sup>69)</sup> 세속화 신학의 수용에 대한 이와 같은 제한과 경계는 매우 중요하다. 즉 세계의 세속화가 역사적 필연의 과정이며, 세속화(근대화)된 기독교의 영향(교육과 의료 등)으로 한국사회

66) 박형규, 「세속도시 논쟁 전망」, 『基督教思想』 11, 1967, 34쪽.

67) 서광선, 「새로운 世代와 世俗化」, 『基督教思想』 10, 1966, 13, 17쪽.

68) 문익환, 「기독교와 세속세계」, 70쪽.

69) 박형규는 콕스의 ‘세속도시’가 다루고 있는 세속화, 도시화, 기독교의 비종교화, 사회변천의 신학 등은 에큐메니컬 학생기독교운동(WSCM, WSCF) 진영에서 교회의 사회화 방향에서 이미 다뤄지고 있는 신학 개념들로 새로운 내용이 아님을 강조했다. 또한 콕스가 ‘조직신학’을 저술한 것이 아니라 ‘사회학적 신학’을 시도한 것이라 하여 기독교 교리 전체 차원으로 확장될 수 없는 이유도 언급했다. 박형규, 「『世俗都市』 論議의 展望」 33, 37쪽.

근대화에 유용성(‘가치의 세속화’)은 있으나, 세속화가 곧 ‘구원’이거나, 세속화 논리 속에 교회가 지니는 힘을 과소평가 하려는 위험성은 경계했다.<sup>70)</sup> 무엇보다 이들은 과학기술로 세속화 되어가는 현대사회에도 ‘종교의 공존’이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 시기 개신교 지식인들은 세속시대 인간의 사회에 대한 관심의 증가가 형이상학적 관심을 전적으로 상쇄시킬 것인지에 의문을 제기한다.<sup>71)</sup> 즉, 세속화는 공간적인 세계의 ‘시간화’로 그 자체 하나의 역사화임에 분명하나, 이는 또 다른 상대화된 역사적 해석의 문제이다. ‘구속사로서의 세속화’로 이해한다면 역사의 왕좌는 ‘절대자(하나님)’에게 귀속된다. 성인된 인류로서 책임지고 자유하는 인간의 역사는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1960년대 중반 개신교 지식인들의 사유 속에 성과 속의 구분은 희박해지고 있었지만 역사 전 과정에서 인간의 책임과 자유의 영역은 제한된 측면이 있었다.

같은 시기 보수교단의 ‘세속화 신학’ 이해를 보자. 대표적인 보수신학자 박아론 교수는 1968년 『신학지남』에 발표한 글에서 세속화 신학을 뉴욕, 런던 등 초현대적 대도시 거주자들의 과학적, 기술본위 인생관에 부합한 ‘앵글로 삭손적 현상’으로 보았다.<sup>72)</sup> 세속화 신학에 대한 그의 비평은 초월성의 배제와 기독교 신관의 부정에 있었다.<sup>73)</sup> 김의환 박사는 ‘기독교를 교회에서 세상으로 옮겨보자’는 세속화 의미에 동의하면서도 신학적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는 세속화 운동의 주창자인 본회퍼의

70) 유동식, 「福音의 世俗性」, 30쪽.

71) 문익환, 「기독교와 세속세계」, 71쪽.

72) 박아론, 「세속화 신학 비판」, 4~5쪽.

73) 박아론은 칼·헨리의 『Frontiers in Modern Theology』를 근거로 ‘세속화신학자들이 기독교성경이 말하는 불가시적이고 초절적인 신을 제거해 버린 것’으로 이해했다. 특히 알타이저, 해밀톤을 비롯한 ‘나머지 세속화론자들’ 역시 ‘기독교성경이 증언하는 신을 부인한지 오래’라 단정하여 세속화 신학의 신관을 비판했다. 이외에도 하버콧스의 ‘세속도시’가 기독교의 내세관인 죽음, 영생, 부활 등을 배제하여 기독교신학을 지나치게 간소화한 것도 비판했다. 앞의 논문, 35~36쪽.

‘비종교화’를 ‘실용적 입장의 그리스도론으로 보고, 본회퍼 신학의 방향이 ‘수직적인 면보다 수평적인 면’, ‘타인을 위한 예수’만을 강조하여 인본주의 기독교론을 주장한 것으로 보았다.<sup>74)</sup> 서울신학대 조종남 교수는 세속시대에 ‘복음의 변질’을 경계했다. “변화하는 상황에 전도방법을 민감하게 적응시키는 사람들에게서 복음자체가 변질되거나 약화되는 오류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뿔을 고치려다가 소를 죽이는 격”이라고 하여 세속화 신학의 사회선교 방향을 복음의 변질로 비판하여 에큐메니컬 지식인그룹과 대조를 이루었다.<sup>75)</sup> 보수 진영의 세속화 비판은 세계교회 선교신학 차원에서도 진행되었다. 앞서 보았듯이 1966년 4월 미국에서 개최된 휘튼대회는 세속화를 혼합주의(Syncretism)로 규정하고 선교의 우선권을 복음 전도 및 교회 개척에 둘 것을 강조했다.<sup>76)</sup> 보수 진영의 경우 기독교 선교의 최우선 과제는 ‘전 세계 복음화’로 교회의 사회선교는 ‘예수로부터 멀어질 위험성’, ‘복음증거에서 벗어날 가능성’, ‘복음의 위치를 소멸하려는 위험성’이라 하여<sup>77)</sup> 선교의 사회화 측면을 복음의 변질 또는 훼손으로 경계했다. 에큐메니컬 지식인들이 세속화의 전면 수용과 서구식 낙관주의를 경계했다면 보수진영에서는 복음의 세속화를 경계함으로써 개인구원 이상의 교회의 사회(역사)의식 형성에 제한적 요소로 작용했다.

74) 김의환, 「世俗化는 기독교를 교회에서 세상으로 옮기는 것인가」, 『基督教思想』 11, 1967, 50~52쪽 참조.

75) 조종남, 「세속시대에 있어서 복음전도」, 『基督教思想』 12, 1968/9, 33쪽.

76) 복음주의 진영은 WCC의 사회선교가 ‘전도를 사회행동으로 대치’한 것으로, 타종교와의 대화는 “그리스도의 유일성, 최종성에 대한 도전이자 타협을 모색하는 시도”로 비판했다. 김은수, 『현대 선교의 흐름과 주제』, 202~203쪽; 박영환, 「로잔대회와 세속화-로잔대회를 통한 세속화의 의미와 과제 그리고 세속화의 방향전환의 요인이 무엇인가?」, 『한국기독교신학논총』 99, 2016, 241쪽 참조.

77) 앞의 논문, 242쪽.

## 2. 교회의 세속화 방향과 사회화 문제

1960년대 한국사회는 근대화 도상에 있었으며 개신교 지식인들은 종교 세속화와 근대화 이행을 결부시켰다. 기독교교수협의회는 1965년 학술대회 주제를 “한국 근대화와 대학의 책임”으로 하여 근대화 토론을 전개하였다. 기독교교수협의회는 종교영역에서 근대화 이행의 저해요소로 ‘폐쇄적 유교주의’, 의식의 봉건성, 비합리성, 권위주의적·폐쇄적·도피적 사고방식 등으로 보고 지식인 특유의 의식 변화·개조를 근대화의 지표로 제시했다.<sup>78)</sup> 종교영역에서 의식의 근대화는 종교의 세속화로 표상된다. 1960년대 개신교 지식인들은 한국사회 안에서 기독교 현실을 ‘유년주일 학교 신앙’으로, ‘80년 전 수준의 정체된 상태’로 자각하고 있었다.<sup>79)</sup> 서남동은 1960년대 기독교의 당면 현실을 ‘제2의 종교개혁’이 요구되는 시기로 인식했다. 그는 제1의 종교개혁이 중세 봉건제도와 결탁된 교권주의로부터의 개혁이라면 제2의 종교개혁은 2차 대전 이후 자유진영에 속한 교회들의 혁명, 갱신, 형태변화가 요구된다.<sup>80)</sup>

“지금 ‘사회 안에 있는 교회’는 마치 이탈리아 국토 안에 둘러싸인 로마의 교황청과 같이 飛地(enclave)가 되었고 풍속은 지금 세속에는 낯설은 異邦과 농토(getto)가 되었다. …… 한때 기독교는 유일하게 가장 참되고(authentic) 절대적인(the absolute) 종교였다. 소위 기독교王國을 이룩했었다. 그러나 지금 그러한 精神構造는 허물어지고 말았다. 國家는 교회의 품에서 벗어나고 理性은 啓示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는 성장과 獨立과 自主를 誇示하게 되었다.”<sup>81)</sup>

78) 전국에서 50여명의 개신교 지식인들이 모인 이 협의회는 근대화를 ‘서구화, 산업화, 의식 상대주의’로, 현대 기술사회와 관련하여 ‘생산기술의 합리화·과학화’로 이해했다. 한국기독교교수협의회30년사편찬위원회, 『기독교교수협의회30년사자료집』, 117~126쪽; 고지수, 「1960년대 한국기독교교수협의회 조직과 특징」, 230~231쪽 참조.

79) 고지수, 앞의 논문, 231쪽 참조.

80) 서남동, 「世俗化的 科程과 그리스도敎」, 15쪽.

위에서 서남동은 근대 이후 국가와 교회의 분리, 계시의 세계에서 이성에 의한 성장과 독립, 자주의 세계에서 상대화되고 계토화된 기독교를 말한다. 앞서 1966년 기독교교수협회의 현실인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 그럼에도不拘하고 이(세속)에 對해 基督教은 異敎이며 크리스찬은 異邦人이다. 우리는 아직도 他界的인 관심과 **알아 듣지 못하는** 方을 즐겨 쓴다. 그래서 世俗世界와의 건널 말을 가지고 있지 않다.<sup>82)</sup>

기독교의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세상과 소통할 수 없게 하는 이유이다. 이원론적·타계적 종교관이 교회의 고립을 자초하는 원인으로 이해되고 있다. 1966년 기독교지도자협의회에서 ‘교회와 세계’로 주제 강연을 행한 김재준은 다음과 같이 교회의 세속화 방향을 제시했다.

조직체로서의 교회가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볍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세상을 속량하기 위해 그 몸을 제물로 바치신 것 같이 교회도 **지금 여기서 세상을 위해 봉사자**로 일선에 나서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교회는 그 자체 안에 목적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속량사회로 만들기 위한 ‘기관’으로서 존재하는 데에 그 본래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교회가 왕성하다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그 왕성한 교회가 역사에 얼마만한 공헌을 하느냐가 문제인 것이다. 이런 방향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재평가해야 한다.<sup>83)</sup>

김재준은 ‘역사 안에서의 교회’와 ‘지금 여기’라는 현실성을 강조하고, ‘세상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교회 역할을 강조하였다.<sup>84)</sup> 이 경우 선교의

81) 앞의 논문, 16쪽.

82) 고지수, 앞의 논문, 234쪽.

83) 김재준, 「한국교회 혁신을 위한 제언」 『김재준전집』 7, 한신대출판부, 362쪽(고지수, 『김재준과 개신교 민주화운동의 기원』, 327쪽에서 재인용).

방향은 세상을 향해 ‘흠여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어느 한 구석에서 우물 안 개구리와 같이 자가류(自家流)를 절대화할 시대는 지나갔으며 그리할 수도 없게 되어 있다. ...초대 사도들도 복음을 그리스야·로마, 전 세계에 공개하여 세계적인 무대에서 승패를 거룬 것처럼 기독교는 언제나 전 세계를 무대로 삼고, 어느 한 구석에서 수군거리는 것을 경멸했다.<sup>85)</sup>

김재준은 교회의 사회화를 곧 ‘교회의 세속화’로 이해했다. 즉 “교회가 세속에 들어가 세속 속의 거룩을 인식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교회와 세속의 일원화이자 성속이원의 일원화를 의미했다.<sup>86)</sup> 본회퍼의 ‘비종교화’, ‘종교 없는 곳에서의 예배와 기도’를 연상시키면서 로빈슨의 “세속적인 거룩함(worldly holiness)”의 다른 표현이다. 흥현설의 다음 글은 보다 더 직접적인 세속운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에 관한 세속적인 말은 우리 크리스천이 교회라는 고립한 집단(Ghetto)을 빠져 나가서 종교의 의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인간들로 하여금 상호간에 관심과 책임으로써 인간의 지위를 회복시키시는

---

84) 여기서 ‘역사’와 ‘지금 여기’라는 현실주의의 강조, 그리고 ‘세상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역할 강조가 곧 김재준이 교회를 ‘세속기관’으로 이해한 것은 아니다. 이 시기까지 김재준은 교회가 ‘이 세상’, ‘역사 안’에 있으며 ‘역사를 위하여’ 있으나 역사에서 난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즉 교회와 세상의 관계 역시 구별되어 있되 절연한 것이 아닌, 봉사하나 세상에 혼동되지 않는 것이 교회이다. 교회는 세상의 종, 주인, 적(敵)도 아니며 ‘그리스도의 종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이며 역사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의 뜻을 세상에 선포하고 그 구현을 위해 분투하는 것’을 교회의 사명으로 이해함으로써 그리스도중심의 교회론을 강조하였다. 김재준, 「교회봉사의 뜻」, 『김재준전집』 8, 한신대출판부, 409쪽(고지수, 『김재준과 개신교 민주화운동의 기원』, 327쪽에서 재인용).

85) 김재준, 「한국교회 혁신을 위한 제언」, 『김재준전집』 7권, 한신대출판부, 1991, 358쪽.

86) 김재준, 「한국 기독교인의 인간상-그 과거, 현재, 미래-」, 『김재준전집』 8권, 한신대출판부, 224쪽.

그의 정치적인 행동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에만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다. 현대인의 기질이 형이상학이나 실존주의보다 정치, 사회화, 역사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sup>87)</sup>

“우리는 공중에 사는 것이 아니고 땅 위에 발을 붙이고 산다는 것과 그리고 인간을 섬기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비워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sup>88)</sup>

성과 속, 거룩과 세속, ‘고난과 안전’의 이원론적 대립의식이 일체화 방향으로 전환되는 세속화 이해는 1960년대 중반 이후 한국개신교의 소수 그룹이 사회의식, 사회화를 획득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4·19직후 교회갱신을 자각했던 혁신그룹에서 1960년대 중반 이후 이원론의 신앙을 벗어나 현실중심의 역사적 기독교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었다. “이미 있던 신화(神話)도 벗겨 그것을 세속화(世俗化)하여 그 어느 때, 그 어느 분의 의로운 삶과 죽음이 지금, 인간들의 현실에 물결쳐 역사 안에서 같은 줄거리의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도록 하는, 역사화(歷史化)의 방향이 곧 현대의 방향”이다.<sup>89)</sup> 이러한 ‘세속’ 이해에 근거한 복음의 역사화 방향은 1960년대 후반 경제성장·산업화가 파생한 인간소외, 노동문제, 도시빈민문제 등 각종 사회 모순들에 교회가 대응하는 에큐메니컬 연합운동으로 구체화된다. 예를 들어 1960년대 후반 산업전도가 도시산업선교로, 6개 회원교단으로 구성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는 1970년대 개신교 민주화·인권운동의 중심기구였으며, 기독교교수협의회 지도하에 학생기독교운동은 1968년 한국기독교학생총연맹(KSCF) 결성과 학생사회개발단(학사단)운동으로, 1968년 도시빈민선교로 시작된 도시문제선교위원회는 1971년 초교파 선교기구인 수도권 도시선교위원회로 확대된다.<sup>90)</sup>

87) 홍현설, 『世俗 속의 크리스천』, 대한기독교서회, 1968, 47쪽.

88) 앞의 책, 32쪽.

89) 김재준, 「고통이란 것: 신화(神話)에서 현실에」 『김재준전집』 8, 출판사명, 349~350쪽(고지수, 『김재준과 개신교 민주화운동의 기원』, 330쪽에서 재인용).

이러한 에큐메니컬 사회선교 기구들은 1970년대 유신 이후 개신교 민주화·인권운동에서 적극적인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였다.

#### IV. 맺음말

이 연구는 1960년대 중반 이후 한국개신교가 신학적 지향이 소수의 진보그룹과 다수의 보수 진영으로 분화되는 시기로 전제하고 이 과정에서 개신교 지식사회 안에 유입된 서구 세속화 신학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1960년대 서구의 세속화 신학을 수용한 개신교 지식인 그룹은 다음의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을 공유하였다. 신학적으로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교회의 선교신학과 교회일치·연합운동(ecumenical movement)을 공유하면서 교단으로는 한국기독교장로회를 주축으로 그 외 감리교, 일부 예수교장로회(통합), 복음교회 등에 소속된 신학자, 목사, 교수 등이다. 대학기관으로는 한국신학대학, 이화여대, 연세대, 감신대 등 에큐메니컬 성향의 기독교대학들에 포진하면서 사회관계로는 학생기독교운동(KSCM), NCKK 등 연합기구를 중심으로 에큐메니컬 신학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이상의 공통사항을 공유하면서 구체적으로는 『대한기독교서회』와 한국기독교수협의회를 기반으로 세속화 신학의 수용과 확산의 지식생산활동을 전개했다. 2차 대전의 참여 신학자 D. 본회퍼에서 기원을 찾는 서구의 세속화 신학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종교(기독교) 쇠퇴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교회 차원에서 등장한 선교신학으로 1960년대 근대화 이행의 한국사회 현실에서는 ‘종교 근대화=세속화’로 수용되었다.

90) 산업선교 단체들의 초교파 협의체인 한국산업문제협의회(1971.1)는 크리스찬사회행동협의회(1971.9)로, 이 협의체가 정비·확대되어 1973년 3월 ‘에큐메니컬현대선교협의회’로 통합되었다. 고지수, 『김재준과 개신교 민주화운동의 기원』, 387~388쪽 참조.

즉 한국개신교 지식인들에게 세속화란 첫째, 기독교 신앙이 시공간적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역사화과정이며 둘째,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삶은 전 영역-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이 통합되어 종교도 그 가운데 한 영역으로 상대화된다. 따라서 세속화된 현대사회에서 종교의 역할은 전체 구조 안에서 다른 영역과 상호 연결되며 분리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개신교 지식인들의 세속화 이해의 결과 두 가지 의미 있는 의식의 변화로 귀결된다. 첫째, 1960년대 한국교회 현실을 세상과 소통할 수 없는 정체되고 계도화된 ‘유년 주일학교 신앙’으로 자각하고 세속화 방향으로의 변화와 갱신의 요구이다. 둘째, 이원론적·타계적 전통신앙에 의해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온 ‘세속(사회)’을 적극적인 선교 대상으로 수용하는 의식의 변화이다. 이 경우 1960년대 산업화·도시화로 진입한 한국사회 문제들에 교회가 직접 참여·조용하는 신학논리를 전개함으로써 1970년대 사회선교로 구체화되었다. 반면에 보수교단은 1960년대 세속화 신학의 수용과 선교의 사회화 방향을 ‘복음의 변질’ 또는 훼손으로 경계했다. 그 결과 1960년대 중반 이후 전도운동, 복음화운동으로 확장된다. 1960년대 중반 한국개신교의 신학적 지향의 분화와 경계에도 제한적 요소가 있었다. 보수진영의 세속화 경계는 개인구원을 넘어선 선교영역, 즉 교회의 사회화에 제한적이었다. 반면에 에큐메니컬 지식인들이 서구식 낙관주의와 세속화의 전면 수용에 대한 경계, 현대 산업사회에서의 ‘종교 공존’을 전제한 것은 세속화 과정 역시 역사의 상대화 과정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 • 참고문헌

- 강문규, 『나의 에큐메니컬 운동 반세기 그 미완의 여정』, 대한기독교서회, 2010.
- 고지수, 『김재준과 개신교 민주화운동의 기원』, 도서출판 선인, 2016.
- 김관석,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대한기독교서회, 1969.
- 김은수, 『현대 선교의 흐름과 주제』, 대한기독교서회, 2001, 191~193쪽.
- 본회퍼 저, 손규태·정지련 역, 『옥중서간-저항과 복종』, 대한기독교서회, 2010.
- 세계기독교연합회 편, 강문규 역, 『基督者의 社會參與-社會的 急變地域에 對한 基督教對策』, 대한YMCA연맹출판부, 1960.
- 에큐메니칼선교훈련원, 『에큐메니칼 운동과 신학사전』 I,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2002.
- 조종남, 『세계복음화운동의 역사와 정신』, IVP, 1992.
- \_\_\_\_\_, 『세계 복음화를 위한 로잔운동의 역사와 신학』, 선교햇불, 2013.
- 피터 버거 저, 이양구 역, 『종교와 사회』, 종로서적, 1981.
- 한국기독교수협의회3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기독교수협의회 30년 자료집』, 한국기독교수협의회, 1998.
- 홍현설, 『世俗 속의 크리스천』, 대한기독교서회, 1968.
- D. 본회퍼 저, 고범서 역, 『獄中書簡』, 대한기독교서회, 1967.
- H. 록스 저, 손명걸 역, 『世俗都市: 現代 文明과 世俗化에 對한 神學的 觀望』, 大韓基督教書會, 1967.
- J. A. T. 로빈슨 저, 현영학 역, 『神에게 率直이』, 대한기독교서회, 1968.
- 강인철, 「해방이후 4·19까지의 한국교회와 과거청산문제-의제 설정을 위한 시론」, 『한국기독교와 역사』 24,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6, 67~102쪽.

- \_\_\_\_\_, 「종교계의 민주화운동」, 『한국민주화운동사』 2, 돌베개, 2009, 358~423쪽.
- 고지수, 「4·19 이후 한국교회 갱신문제와 “참여” 이해 -장공 김재준의 정교분리 이해를 중심으로」, 『史林』 vol. 57, 수선사학회, 2016, 295~324쪽.
- \_\_\_\_\_, 「1960년대 한국기독교수협연합회의 조직과 특징」, 『史林』 vol. 63, 2018, 217~253쪽.
- 김재준, 「한국교회 혁신을 위한 제언」, 『김재준 전집』 7, 한신대출판부, 1992, 358~365쪽.
- \_\_\_\_\_, 「한국 기독교인의 인간상-그 과거, 현재, 미래-」, 『김재준 전집』 8, 한신대 출판부, 1992, 216~228쪽.
- 김의환, 「世俗化는 기독교를 교회에서 세상으로 옮기는 것인가」, 『基督教思想』 11, 1967, 50~54쪽.
- 노치준, 「해방 후 한국 장로교회 분열의 사회사적 연구-世俗化와의 관련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5, 1986, 11~48쪽.
- 문익환, 「기독교와 세속세계」, 『基督教思想』 10, 1966, 68~71쪽.
- 박명립, 「박정희 시대의 민중운동과 민주주의: 재야의 기원, 제도관계, 이념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24권 2호, 2008, 29~62쪽.
- 박아론, 「세속화신학 비판」, 『신학지남』, 1968/9, 3~37쪽.
- 박형규, 「세속도시 논쟁 전망」, 『基督教思想』 11, 1967, 32~39쪽.
- 서광선, 「새로운 세대와 세속화」, 『基督教思想』 5, 1966, 12~18쪽.
- 서남동, 「세속화의 과정과 그리스도교」, 『基督教思想』 2, 1966, 15~26쪽.
- 손명걸, 「世俗化 과정에서의 새로운 기독교」, 『基督教思想』 12, 1965, 66~73쪽.
- 유동식, 「福音의 世俗性」, 『基督教思想』 11, 1967, 24~31쪽.
- 이규호, 「종교의 세속화와 자율성」, 『基督教思想』 12, 1968, 86쪽.
- 이상록, 「1960~70년대 비판적 지식인들의 근대화 인식」, 『역사문제연구』

18호, 2007, 215~251쪽.

이영숙, 「진보적 개신교 지도자들의 사회변동 방안 연구」, 『현대 한국의 종교와 사회』, 문학과지성사, 1992, 244~250쪽.

임대식, 「1960년대 초반 지식인들의 현실인식」, 『역사비평』 no. 65, 역사비평사, 2003, 301~331쪽.

정재영, 「근대화와 한국 개신교-세속화론을 중심으로-」, 『동양사회사상』 vol. 17, 2008, 27~57쪽.

조종남, 「세속시대에 있어서 복음전도」, 『基督教思想』 12, 1968/9, 29~36쪽.

## The acceptance of secularization by Protestant intellectuals and the theme of socialization of the Korean Protestants in the 1960s

Koh Ji Soo\*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Western secularization theology, which was housed within Korean churches in the 1960s, on Protestant intellectual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hurch's socialization relationship. The mid-1960s was a time when Korean Protestantism differed from theological orientation into a small number of progressive groups and many conservative camps. This phenomenon was caused by a variety of theological backgrounds, but this study approached the change factor of the influence of the “secularization” of religion after the modern period, as was called by Western secularization theology, on the social consciousness of the church in the nation.

“Secularization” has been widely studied as a classical theory that explained the religious relationship following the social changes in the West, as it has been understood as a process of rationalization of religion since modern times. According to religious secularization theory, as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progresses, the influence of traditional religion decreases and the religious population decreases as the tendency of rationalization of human

---

\* visiting professor, Sungkyunkwan University

consciousness progresses. However, with the development of moder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in the 1960s, the situation of Korean Protestantism is different from the general logic of secularization of religion. Traditional religious groups presented growth-oriented mission strategies according to the trend of individualization of faith following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On the other hand, a small number of Protestant intellectuals and progressive groups have changed their understanding of the whole realm of human life from a consensus and unity perspective by reinterpreting the Christian “world” in urbanized and industrialized modern society. This means that the separation of the ‘Holiness’ and ‘the world’ is consistent, and as a result ‘the world (society)’ is an active subject of mission. In reality, the social consciousness and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church are more emphasized, and the Protestant Ecumenical Social Participation Movement has taken shape since the late 1960s.

Key words: Protestant intellectual, secularization, theology of secularization, modernization, Christian professor, Ecumenical, socialization of church

필자 E-Mail: soleer@skku.edu.

투고일 2019년 01월 14일 / 심사완료일 2019년 01월 29일 / 게재확정일 2019년 01월 31일